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화장실을 사용하고 습관적으로 물을 내리지 않아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꼭 물을 내려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Flush the toilet after use." 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경찰한테 그 서류를 건네 줘라.
Hand over the document to the police.

2. (좋은 기회니까) 그냥 확 잡아버려.
Go for it. Don't let it pass. Grab it.

3. 내 지갑 좀 찾아 줘.
Look for my wallet. (You do it. 당신이 해)

4. 철이 좀 들어라.
Grow up!

5. 점수에 실망하지 마라.
Don't get disappointed with the grades.

6. 그냥 지금 해라.
Just do it now.

7. 창문을 내려라.
Roll down the window.

8. 창문을 올려라.
Roll up the window.

9. 사용 후 물 내려라.
Flush the toilet after use.

10. 미리 내.
Pay in advance.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류현진, MLB 아시아인 좌완 최다승 기록 세울까?

메이저리그(MLB)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은 박찬호의 124승이다. 일본인 선수 최다승 기록은 노모 히데오(123승)가, 대만인 선수 최다승 기록은 왕젠밍(68승)이 가지고 있다.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모두 우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류현진이 올해 MLB 아시아 출신 좌완 최다승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현재 MLB 아시아 출신 좌완 최다승 기록은 대만 출신 천웨인의 59승이다. 류현진은 54승을 기록 중이다.

천웨인이 MLB에서 류현진과 같이 경쟁하면 류현진의 기록 경신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천웨인은 마이애미와 계약 후 먹튀 오명을 쓰고 지난해 11월 방출 후 시애틀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 계약 선수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언제 메이저리그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른다.

다저스에서 토론토로 이적한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보다 승리를 쌓기 다소 불리한 여건이라는 분석이다. 승리투수는 투수 혼자 힘으로 만들 수는 없는

데, 팀 전력 면에서 두 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상의 늪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고, 천웨인과 레이스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이런 예측에도 복병은 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즌 단축이 변수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MLB 개막일 또한 미궁에 빠졌다. 확실한 것은 5월 개막이 어렵다는 것이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동시에 크게 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6월 개막도 불투명하다. 어떤 경우이든 예정됐던 162경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 시즌이 얼마나 단축될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절반 정도인 81경기에서 100경기 사이가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류현진이 올해 천웨인을 넘고 MLB 아시아 출신 좌완 최다승 타이틀을 따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국경 폐쇄에 따라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플로리다주에서 머물며 훈련하고 있는 류현진의 현재 상황도 기록 경신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개최 예정 'US오픈 골프' 열릴까?

올해 US오픈을 개최할 예정인 뉴욕주 윈드풋 골프 클럽이 지난 22일부터 문을 닫았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사태로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번 윈드풋 골프클럽의 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을 폐쇄하라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 때문이다.

윈드풋 골프클럽은 뉴욕주에서도 최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뉴로셀에서 불과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클럽에는 필수 인원만 빼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는다. 문제는 US오픈 준비를 위해 코스 관리를 하던 미국골프협회(USGA) 경기위원회 파견 직원과 일꾼마저 모두 철수했다는 사실이다. US오픈에서 최고의 변별력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코스 관리에 나서는 USGA는 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오는 6월 18일 개막하는 US오픈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2개월가량 준비가 필요하지만 서두른다면 한 달 정도도 가능하다. USGA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다음 달 중순에 다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역 예선도 모두 취소한 마당에 개최 코스마저 폐쇄되자 US오픈 역시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연기해도 올해 안에 마땅한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아 USGA의 고민은 크다. 이미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이 가을로 대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터라 가을로 연기하기도 어렵다.

USGA는 도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던 기간에 US오픈을 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예정된 6월18일부터 대회 규모를 대폭 줄여 개최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